

오피니언

금남로에서

정재현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게 있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다. 1931년 미국의 한 보험사에 근무하는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는 산업재해가 발생, 중상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래서 하인리히 법칙을 1:29:300 법칙이라고도 부른다. 이 법칙은 큰 사고는 일어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와 전조들이 있으며 이를 방지할 때 발생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지역민심의 잇단 이상징후

최근 광주·전남지역 민심에 '이상 징후'가 잇따르고 있다. 제1 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경고음이 계속 울리고 있는 것이다. 의미 있는 전조(前兆) 현상은 지난 10·27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에서 나타났다. 과거 허수아비를 내세워도 당선된다는 정치적 강세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3위로 밀

려나는 굴욕을 당했다. 민주당 후보가 호남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3위로 처진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7·28 광주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이상 징후는 발견됐다. 민주당 후보가 압승할 것이라는 애초 예상과는 달리 비민주당 야 4당 단일후보에 신승했다.

뿌리 흔들리는 '민주號' 갈 길은...

이상 징후는 또 있다.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호남 지지율 상승세가 예상롭지 않다. 지난 8월 미디어리서치의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박 전 대표는 18.3%로 1위를 차지했다. 민주당 한명숙 전 총리(13.8%), 손학규 대표(12.8%), 정동영 최고위원(10.0%)을 제친 것이다. 박 전 대표는 지난 7월 리서치앤리서치 조사에서도 19.6%로 선두였다. 20%에 육박하는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은 호남 정서상 이변이라 할 수 있다. 박 전 대표가 호남차별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점에서 그

렇다.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호남민심의 변화 조짐은 민주당의 오만함과 안이한 자세에 대한 경고라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한 세대 가까이 지역의 거의 모든 정치적 자원을 독식하며 반사이익을 누리 왔다. 하지만, 그것은 특정 정치인과 그들에게 줄을 선 소수인의 몫이었다. 반면 지역과 지역민에게 돌아온 것은 지역적 차별과 경제·사회적 소외였다. 지금까지 이 같은 차별과 소외를 감내한 것은 '집권'을 통한 정치적 중심세력으로서 편입되고픈 숙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호남인의 한(恨)은 지난 1997년 대선과 2002년 대선을 통해 어느 정도 풀렸다. 그러나 호남을 기반으로 탄생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광주·전남은 변한 게 없었다. 같은 오해와 억압을 당하면서 그렇게 밀어줬는데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라는 회의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게 바로 민주당에 등을 돌리는 가장 큰 원인이다. 민주당이 독식한 호남지역 지방자치가 부패로 얼룩지고 다양성이 실종된 것도 지역민의 마음을 떠나게 하고 있다. 모든 득권권을 강그리 움켜쥐고 지역 여론은 무시한 채 지역정치를 쥐락펴락 하는 행

태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호남정치적 독과점 구조에 대한 폐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상징후'의 근본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변화와 개혁은 지상명령

민주당은 자신들이 '뒷밭'이라고 여기는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잇단 이상징후에 걸로서는 긴장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려는 진정성이나 절박함은 없어 보인다. "호남 민심은 결국 우리 편일 것"이라는 안이함에 젖어 있는 것이다. 아직도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음이다. 호남민심의 이상징후가 대형사고로 이어지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민주당에 달려 있다. 지역민이 민주당에 부여한 미션은 분명하다. 변화와 개혁이다. 지역민과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정당, 파벌과 계파라는 기존의 낡은 가치에서 탈피해 젊고 활력이 넘치는 신선정당, 진정으로 시민과 약자를 보듬는 진보정당, 말이 아닌 실천하는 신뢰정당으로 환골탈태하라는 게 지역민의 지상명령인 것이다. 민주당은 호남민심의 이상징후를 예사롭게 넘겨쳐 다가오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돌이킬 수 없는 '대사고'를 맞을 수 있음을 새겨야 한다. 뿌리가 흔들리는 나무는 고사(枯死)할 수밖에 없다. <논설실장> jhjung@kwangju.co.kr

시설

'눈 가리고 아웅'한 광주 공기업 구조조정

광주시가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섰으나 결과적으로 '숫자놀음'에 그쳐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들 기관이 인원 감축 대신 직원 수 보다 부풀려 책정된 정원만 줄여 사실상 '무늬만' 구조조정을 한 것이다. 광주시는 최근 정원 5% 조정과 경상 예산 10% 절감 등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원 1723명 가운데 90명을 감축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져 당초 의도하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정원 5% 조정도 실제 인원 감축이 없거나 부풀려진 정원만 줄인 것이라고 하니 그야말로 '말' 뿐이 아닌가. 구조조정을 현재 근무인원이 아닌 정원을 기준으로 해 현원보다 부풀려진 정원의 수만 줄인 것이다. 광주도시공사 경우 구조조정을 정원 265명에서 현재 근무인원 254명을 제외한 11명을 감

축하는 선이라고 한다. 환경시설공단과 도시철도공사 역시 구조조정이란 게 이와 흡사하다. 또 이들 기관은 퇴직자 등 자연 감소분에 대해 신규 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근무인력은 그대로 두고 책정된 정원만 줄여 사실상 '무늬만' 구조조정을 한 것이다. 광주시는 최근 정원 5% 조정과 경상 예산 10% 절감 등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원 1723명 가운데 90명을 감축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져 당초 의도하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정원 5% 조정도 실제 인원 감축이 없거나 부풀려진 정원만 줄인 것이라고 하니 그야말로 '말' 뿐이 아닌가. 구조조정을 현재 근무인원이 아닌 정원을 기준으로 해 현원보다 부풀려진 정원의 수만 줄인 것이다. 광주도시공사 경우 구조조정을 정원 265명에서 현재 근무인원 254명을 제외한 11명을 감

치솟는 물가에 '뒷북'만 치고 있을 건가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동월 대비 4% 이상 올라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호남지방통계청의 10월 중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광주는 1년 전에 비해 4.3%, 전남은 4.6%가 각각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4.1%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특히 전남은 울산, 제주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역물가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물가 급등은 채광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가 지난해 동월보다 50% 넘게 오른 데 따른 것이다. 가히 '발상 물가 대란'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물가가 치솟는 데는 이상기후라는 특수요인이 주된 원인이지만 정부의 안이한 대응도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다. 상추·무와 배추같은 8월부터 폭염, 잦은 비와 태풍으로 흉작을 기록한 데다 당국이 일찍 수입 시기를 잡지 못

해 공급 부족으로 2배 이상 값이 뛰었다. 자연적 재해에다 당국의 뒷북대책이 물가 상승을 부추긴 셈이다. 앞으로 더 큰 문제는 인플레이 기대심리다.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불안심리를 잠재우지 못하면 사회 전반에 인플레이를 확산하는 악순환을 유발하게 된다. 이는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큰 부담이 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 벌써 물가에 영향력이 큰 집세가 오름세를 타고 채소류 외에 축산물과 수산물 상승도 심상치 않다. 지금처럼 안이한 대응으로는 물가불안 심리를 차단하기 어렵다. 뒷북이나 치고 썰끔 대책으로는 물가를 잡기 어렵다는 얘기다. 따라서 생활물가를 중심으로 가격 및 시장 모니터링과 가격 조정 등의 근본적인 종합대책이 나와야 한다. 무엇보다 폭리를 노린 중간상인의 사재기를 근절할 유통체계의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

은핀칼럼

김창균



8년간의 한과라던가. 때 이른 10월 한파가 지나간 주말, 질어가는 가을을 위하여 곱게 물들어가는 단풍 사이를 아아아 걸었다. 대지에 가득한 가을 햇살에 눈을 부시고, 흥연 울적 커버린 아이의 모습을 보며 어릴 때 잃어버린 동화를 떠올렸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로버트 먼치·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제 몸도 못 가누던 아이가 어느새 10대에 접어들더니, 교복 매부새에도 시간을 보내는 감수성 어린 중학생이 되었다. 품 안에만 있을 것만 같던 아이는 벌써 저만치 있고, 끈 결을 떠나 홀로서

제는 '자기주도 학습전형' 및 '입학사정관제'로 나아가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교육 변화가 과연 21세기 인재상에 부응하는가 하는 거시적 질문을 떠나 부모의 역할(책임)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다. 주위의 많은 학부모들이 위 광고 문구에 대해 '속상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일견 이해가 된다. 특목고나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 스펙 관리의 중요성, 학교교육과정만으로는 원하는 삼급학교에 진학하기 어려운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이론적 부모는 유익한 이야기지만 학부모의 실질적인 감정과 마음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서운함의 반영이라. 원론적이지만 21세기는 학습하는 방

기고

조영석



영양에서 열린 '2010 F1코리아그랑프리'가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막을 내렸다. 모터스포츠 불모지인 지방 소도시에서 3일간 16만여 명의 관람객이 모여들었고, 외국인 관람객도 5000명이 넘었다고 한다. 지축을 뒤흔드는 굉음과 시속 320km를 넘는 초고속의 질주는 관람객들에게 짜릿한 쾌감을 선사하며 열광하게 만들었다. 개최지마다 찾아다니는 F1 마니아들이 매년 늘어나는 이유를 필자는 자원봉사자를 하며 만난 여러 사람들 통해 분명하게 짐작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 처음 열린 F1대회란 점에서 보면 관람객이나 홍보효과 면에서는 꽤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개최지

축해 미완성된 서킷 주변을 하루빨리 완공하고 문제가 된 시설부수를 서둘러야 한다. 도에서도 정부만 기대지 말고 민간이나 해외자본을 유치해 국제적 수준의 숙박 및 레저시설도 확충해야 한다. 체계적인 준비로 서킷이 근접한 곳에 대규모호텔을 짓고 2009년 첫해부터 F1경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아부다비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둘째, 체계적 운영관리는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핵심요소다. 값비싼 입장료를 내고 멀리서 온 관람객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교통, 관리시스템, 정보제공 등 관람객의 입장을 고려한 시설과 운영은 필수적이다.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수준높은 서비스와 편의성을 제공해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셋째, 국내기업들의 더 많은 참여가 절실하다. 이번에는 국내의 자동차 및 타이어, 부품 등 관련기업들이 6억 명이 넘는 시청자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효과적 활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다. 글로벌기업들은 F1대회를 기업 인지도를 제고하는 마케팅의 현장으로 삼아야 한다. 넷째, 광주·목포·나주 등 인근 도시들과 연계한 체계적인 홍보 및 운영전략도 필요하다. 교통과 숙박서비스,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제고해야만 지속적인 성공이 보장되고 지역의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다. 이번 F1대회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과 성공요인들을 잘 활용해 지역발전과 시민의식 성숙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내년 10월 14일~16일 또다시 흥분으로 가슴 뛰게 할 F1코리아그랑프리 벌써 실명 속에 기다려진다. <목포대 경영대 교수>

F1대회 절반의 성공, 그 아쉬움과 설레임

었던 영양, 야외행사를 주관했던 목포시는 물론이고 해남·함평·광주 등 인근까지 확산된 경제적 효과는 컸다. 목포 평화광장 일대에는 대회기간 내내 인파로 넘쳤고, 일부 음식점이나 호프집에선 외국인도 내국인보다 더 많은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이는 정부, 전라남도, 조직위원회, 운영자, 지역주민,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참여해 이루어낸 소중한 성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시간에 쫓기다 보니 운영 미숙과 시설미비, 관람객 불만 등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며 반쪽짜리 성공으로 그치고 말았다. 특히 입장권 및 운영관련 측면에서는 큰 오점을 남겨 신속하고 충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F1대회가 지역발전과 화합을 이끌어내는 성공적인 스포츠제전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적인 협조가 중요하다. 경제적 효과가 막대한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

는 서비스와 편의성을 제공해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셋째, 국내기업들의 더 많은 참여가 절실하다. 이번에는 국내의 자동차 및 타이어, 부품 등 관련기업들이 6억 명이 넘는 시청자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효과적 활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다. 글로벌기업들은 F1대회를 기업 인지도를 제고하는 마케팅의 현장으로 삼아야 한다. 넷째, 광주·목포·나주 등 인근 도시들과 연계한 체계적인 홍보 및 운영전략도 필요하다. 교통과 숙박서비스,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제고해야만 지속적인 성공이 보장되고 지역의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다. 이번 F1대회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과 성공요인들을 잘 활용해 지역발전과 시민의식 성숙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내년 10월 14일~16일 또다시 흥분으로 가슴 뛰게 할 F1코리아그랑프리 벌써 실명 속에 기다려진다. <목포대 경영대 교수>

등산객들 솔밭을·솔잎 채취 행위 자제해야

우리나라 국민들은 건강에 유난히 관심이 높다. 하지만 운동보다 보약이나 건강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 문제가 크다. 최근 등산을 갔다가 솔밭을 찌뿌리게 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한 등산객이 자녀를 데리고 약으로 쓰려고 솔밭을 솔잎을 마구잡이로 채취하고 있었다. 자녀에게 자연보호를 가르쳐야 할 부모가 자연을 훼손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솔밭을 따게 되면 소나무의 생육에 막대한 지장을 줄 뿐더러 인산불림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일부 등산객들은 이런 점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다. 꼭 법적인 규제가 아니더라도 시민들 스스로 자연을 보호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다. <보유진·광주시 서구 덕흥동>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기를 시도할 것이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라는 공익광고가 생각난다. '멀리 보고 함께 가며 꿈을 꾸라'는 부모와 '앞만 보고 앞서 가라며 꿈꿀 시간을 주지 않는' 학부모 중에서 나는 어느 쪽일까. 꿈꿀 시간에 한 자라도 더 외워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 평생학습 시대를 살아가는 원천은 지적 호기심과 탐구력이라며 아이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된다. 디지털 시대의 대표 아이콘으로 TGiF(Twitter, Google, iPhone, Facebook)가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아이들은 앉은 자리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하는 데 이미 익숙해져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고 친구 관계를 맺는 소통의 도구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고 있다. 최근 20년간 교육 시장도 큰 변화가 생겼다. 모의고사 점수에 맞춰 비로소 지원 대학(학과)을 고민하던 시절에서 초등학교 5, 6학년용 대상으로 하는 '특목고 입시 대비'까지 다양해졌더니, 이

법에 대한 학습(learning how to learn)과 스스로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하는 자기주도 학습이 강조되고 있으며, 자신의 꿈과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것이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도 아이의 인생 로드맵을 위해 입시 컨설턴트를 찾아야 하고, 다 크도 록 뒷바라지를 책임지는 헬리콥터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우리네 부모, 아니 학부모의 자화상이라던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루소의 '에밀'에는 이런 글귀가 있다. "자식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언제나 무엇인든지 손에 다 넣어서 주는 것이다." 창의적 인재는 의존적 학습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문제를 찾아 탐구하고 해결해 나가는 데서 길러지는 법이다. 물론 남들처럼 못해주는 못난 부모, 아니 학부모의 핑계일 수 있지만 한번쯤은 되돌아볼 경우가 아닌가 싶다. <광주북성중 교사>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핀상'을 수여 합니다. 은핀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핀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無等鼓

구약성서에는 유대인 과부 유디트(Judith)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당시 이스라엘의 도성 베들리아는 살육과 강간을 서슴지 않는 잔인한 아시리아 군대에 점령당해 신음하고 있었다. 베들리아 최고의 미녀였던 유디트는 조국을 구해내기 위해 아름답게 치장하고 적장 홀로페르네스를 찾아간다. 적장을 유혹하는 데 성공한 유디트는 격정적인 밤을 함께 보낸 뒤, 풀어버린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어낸다. 장수가 죽은 아시리아의 군대는 퇴각하고, 이스라엘은 평화를 되찾는다. 이후 수많은 그림과 오페라 등으로 재현된 유디트 이야기는 서양 미인계(美人計)의 전형이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스파이 혐의로 처형된 네덜란드인 무용가 마타 하리(Mata Hari)도 미인계로 유명하다. 1914년 베를린에 있던 마타 하리는 독일 정보기관에 포섭돼 연합군 고위장관들을 유혹, 정탐해 낸 고급 군사기밀들을 독일군에 제공했다. 결국 영국의 정보기관에 의해 스파이임이 밝혀진 그녀

는 프랑스 파리에서 체포돼 총살됐다. 중국에서는 월(越)나라의 미녀 서시(西施)가 오(吳)나라 왕 부처를 미색으로 유혹, 결국 오나라를 멸망시킨 사례가 전해져 온다. 미인계에는 군대가 필요없다. 미색과 기지만으로 충분하다. 중국의 병법서 '삼십육계'에서도 미인계는 제31계로 중시됐을 정도다. 그만큼 효율적이라는 애기다. 북한이 중학교를 갖 줄일만한 16세의 어린 여성들로 '3천 공녀'를 뽑아 미인계에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탈북 시인 장진성씨에 따르면 북한은 미모의 여성들로 하여금 남한은 물론 해외 유명 정치인과 언론인, 학자들을 포섭해오고 있다고 한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예나 지금이나, 강대국이거나 약소국이거나 모두가 미인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또 한번 드러난 셈이다. 달콤한 로맨스 뒤에 숨겨진 처참한 결말을 감지하고서도 부나비처럼 미색에 빠져드는 남자들이 안타까울 뿐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

유디트(Judith)



Table with 2 columns: 광 卍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